**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8:27-30 2015년 9월 13일

훼어필드 그레이스 연합 감리 교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언자가 아닌가 하던데요”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그렇게 오래 지내셨는데, 정말로 제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지 시험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답을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얼굴을 보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현자 중의 한 사람입니까? 선생 중의 한 사람입니까?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저기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현존이십니까? 제자 중의 한 사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메시야 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요? 정말로,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메시야라고 믿습니까? 진지하게 메시야 이심을 구세주 이심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야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삼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 베드로가 말씀을 막고 나섭니다. 화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리도 없고, 그렇게 될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좋은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원하는대로 모시고 가려고 하지 않나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여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려고 하면 안됩니다. 예수님 길로 우리가 따라 나서야 합니다.

조니 아시죠? 조니 이어렉슨 타다. 그녀는 17살 때 수영 점프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장애자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반신 불구에 두 손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나,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병신이 되게 하셨나 울부짖으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조니의 친구 하나가 찾아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친구는 조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니, 예수님이 너희 마음과 아픔을 다 아시고 계셔. 너는 혼자 고생하고 있지 않아. 그의 몸도 마비가 되었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알지? 매 맞으셔서 등이 다 헐었을거야. 좀 움직이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으셨겠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에 박힘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신거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조니에게 깨달음의 빛이 환하게 밝아 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니는 하나님를 향한 분노가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니와 가까이 함께 계심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길을 고집하며 따라가면 안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알고 있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저거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뒤로 섰거라 사탄아” 하시면서, “네가 세상 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 안 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제가 좀 덧붙혀서 옮긴다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까불지 말아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뭐 대단하다고 야단이냐?” 베드로에게 앞서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해석하셨는데, 영어로 말입니다. “The Message”라는 성경입니다. 그 목사님은, 34절의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는데, 물론 영어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갈 의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인도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네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야, 구원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와우. 참 굉장한 명령이십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특별히 힘듭니다. 이 세상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대 말을 하고 계십니다. “ 이 세상을 다 얻고, 너의 생명을 잃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십니다. 헛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다. 진정 의미있는 삶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대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세상으로 부터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나 처럼 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하면 이웃들에게, 나 아닌 타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너희 삶의 중심에서 너를 뽑아 내야한다. 내가 메시야임을 진정 믿는다면, 나를 따르는 삶을 최 우선으로 하여라.”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과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영원을 맛보는 삶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메시야 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에 앉아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한번씩 들어보는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언약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I am no longer my own but yours. 저는더 이상 제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Put me to what you will,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Rank me with whom you will;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Put me to doing, put me to suffering;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주소서.**

**Let me be employed for you or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Laid aside for you,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Exalted for you, or brought low for you;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낮추기도 하소서.**

**Let me be full, let me be empty,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Let me have all things,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하시며,**

**Let me have nothing;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I freely and wholeheartedly yield all things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To your pleasure and disposal.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And now, glorious and blessed God, 오, 영광스럽고복되신하나님,**

**Father, Son and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You are mine and I am yours.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So be it. 아멘.**